

2012
September 25

글로벌 보건산업동향

Weekly Healthcare Industry Trends



포커스

일본 지역의료 우수 사례 분석

정책동향

- [미국] 미국, '패스트트랙' 등 신속한 규제검토 통해 항암제 승인절차 개선
- [독일] 독일, 스타틴 제제 관련문서에 당뇨병 발명 위험 기록 의무화
- [중동] 사우디 정부, 대형병원 건설 수행업체로 HLG 컨소시엄 선정
- [미국] 미 FDA, 로레알 '랑콤' 화장품 광고 중단 지시

산업동향

- [글로벌] 글로벌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위축
- [미국] 미 유-시스템스, 초음파 치밀유방 진단기 승인 획득
- [EU]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, 얼굴 형태 결정 유전자 발견
- [영국] 영 킹스칼리지런던-에식, 산호 추출물 자외선 차단제 개발 제휴

신규보고서

- [일본] 일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의사 양성 방안
- [중국] 성장하는 대만 의약품·의료기기 시장

포커스

- 일본 지역의료 우수 사례 분석 1

정책동향

- [미국] 미국, '패스트트랙' 등 신속한 규제검토 통해 항암제 승인절차 개선 5
- [미국] 미 감염증학회, GAS 인두염 가이드라인 개정 5
- [독일] 독일, 스타틴 제제 관련문서에 당뇨병 발명 위험 기록 의무화 6
- [일본] 일본, 치매 조기진단 정책 시행 6
- [중동] 사우디 정부, 대형병원 건설 수행업체로 HLG 컨소시엄 선정 7
- [미국] 미 FDA, 로레알 '랑콤' 화장품 광고 중단 지시 7

산업동향

- [글로벌] 글로벌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위축 8
- [미국] 미 J&J, 4개 지역별 글로벌 혁신센터 설립 방침 8
- [미국] 미 유-시스템스, 초음파 치밀유방 진단기 승인 획득 9
- [EU] 덴마크 룬트벡, 핀란드 바이오티에 1천만 유로 투자 9
- [EU] 독 베링거, 스위스 취리히공대와 당뇨병·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 10
- [EU]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, 얼굴 형태 결정 유전자 발견 10
- [미국] 미 심장기기 업체 보스턴 사이언티픽, 브릿지포인트 메디컬 인수 11
- [영국] 영 킹스칼리지런던·에식, 산호 추출물 자외선 차단제 개발 제휴 11

신규보고서

- [일본] 일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의사 양성 방안 12
- [중국] 성장하는 대만 의약품·의료기기 시장 13

포커스

일본 지역의료 우수 사례 분석

일본에서는 최근 고령화,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,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의료비 억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. 본 자료는 일본 정책투자은행과 일본경제연구소가 '12년 9월 발표한 '우수 사례로 배우는 지역의료의 발전방향(先進事例から学ぶ、今後の地域医療のあり方)'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의료비를 억제하고 의료기관의 건전경영을 실현하는 사례를 통해 지역의료의 발전방향을 고찰

□ 일본의 지역의료 현황 및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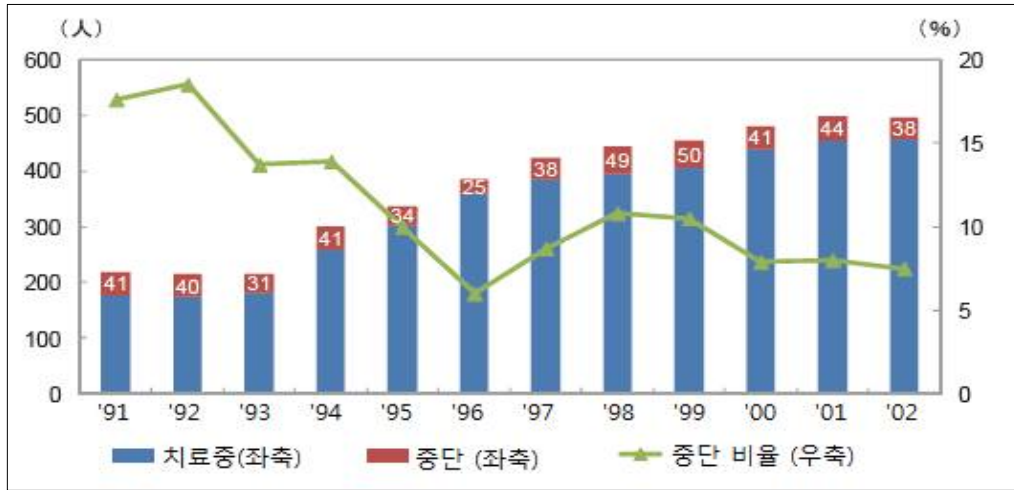
- (국민의료비 증가) 일본 국민의료비는 '90년대 소득대비 6%에서 '09년 10%를 상회하는 등 경제성장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
 - 고령화 현상은 국민의료비 상승 원인 중 하나로 국민의료비 중 약 절반이 인구의 20%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
 - * 일본에서 65세 이상의 국민 1인당 의료비는 65세 미만의 4.2배
 - 국민 1인당 의료비의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
- (의료기관 경영 악화) 국민의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의료비 억제 정책을 취하고 있어 의료기관 경영은 계속 악화
 - 전체적으로는 적자병원이 흑자병원을 상회하고 있으며, '10년 현재 개인병원 40% 정도가 적자상태
 - 의사 부족·의사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, 의료의 전문화·고도화, 생애 종사시간이 짧은 여성의사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도 내포
 - '04년 도입된 새로운 임상연수제도가 병원근무 의사 부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, 환자들의 지나친 권리의식도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

- (지역의료 과제) △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정한 의료비 책정, △의료기관의 건전경영, △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의료 실현이 필요
 - 의료기관이나 행정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예방 및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
 - 의료기관간 연계 및 IT시스템으로 질병을 관리함으로써 중증화를 방지
 - 의료기관과 행정의 연계 및 적절한 기능 분담으로 질병의 예후를 철저히 관리해 노인들이 거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예방
 - 의료기관은 다양한 수입증대 방안을 통해 의료의 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용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효율경영 실현
 - 적절한 지역의료 실현, 의료기관의 효율 경영 등을 추진할 강력한 경영자나 지도자의 역할 수행이 중요

□ 일본의 우수 사례

- (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모델) 의료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지역 포괄 의료 케어를 연계·협력해 지역 주민의 니즈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제공
 -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(廣島縣 尾道市)는 '7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공립 병원 조직 내에 보건복지 관련 행정 창구 및 서비스를 일원화하고, 각 병원이 돌봄시설 등의 부대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구조를 구축
 - * (성과) △거동이 불편한 노인 감소, △주민의 편의향상, △의료비 증가율 둔화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달성, △병원경영 개선
 - 나가사키현 히라도시(長崎縣 平戸市)는 '80년대 이후 보건·의료·돌봄·복지 서비스 종합거점을 신설해 각 병원과 연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와 함께 건강관리, 고령자 재택케어 등 다양한 건강진단 사업을 포괄적으로 제공
 - * (성과) △기본 건강검진 수진율 증가, △당뇨병 환자의 치료 중단을 감소, △돌봄 필요 인정자 증가율 둔화, △의료비의 적정화, △병원경영 개선

<그림> 일본 나가사키현 히라도시의 당뇨병 환자 연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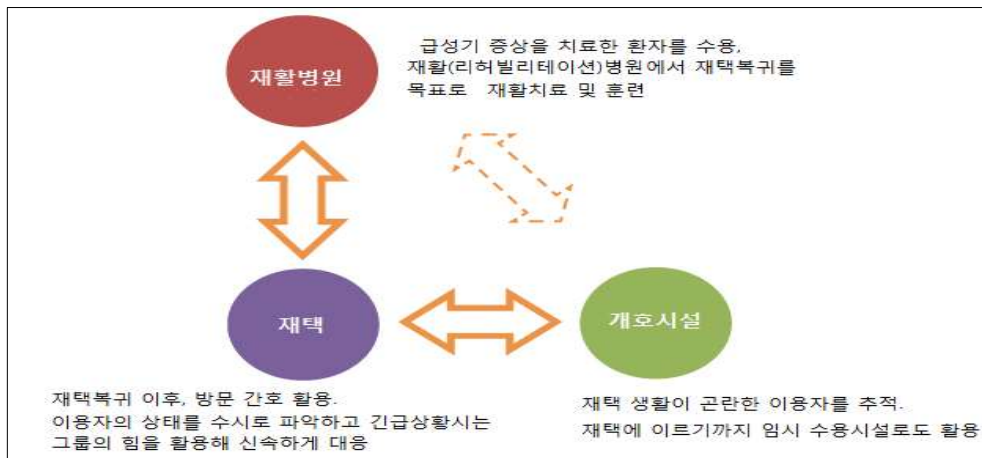
○ (리허빌리테이션 모델)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비 적정화란 관점에서 회복기 리허빌리테이션이 중요하지만 이를 제공하는 병원은 아직 부족

* 리허빌리테이션(rehabilitation) : 사회복귀 재활치료

- 교토시 민간의료법인그룹은 회복기 리허빌리테이션 병원을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돌봄 관련 사업소를 운영하는 보건·의료·복지의 복합체로, 재활치료 및 훈련을 통해 재택돌봄 기능을 원활하게 제공

* (성과) △재활치료를 집중 실시함으로써 환자의 빠르고 원활한 사회 복귀, △돌봄이 필요한 환자 수용처 제공, △창구 일원화로 이용자의 편의 향상, △급성기 병상 치료와 비교해 의료비 절감

<그림> 고령자의 생활 기반이 되는 재활병원, 재택, 돌봄시설



○ (당뇨병 질병관리 모델) 당뇨병 의료비는 지자체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증화 예방을 위한 질병관리가 당뇨병 대책의 핵심

* 질병관리는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생활습관병 대책 중 하나

- 지바시(千葉市)는 도우가네 병원을 중심으로 △병원과 진료소의 명확한 기능분담을 통한 휴먼네트워크 구축, △진료소로의 진료기술 이전, △순환형 지역의료 연계시스템 구축 및 당뇨병의 지역연계 패스 구축, △IT를 통한 질병상황 관리 등을 실시

* (성과) △환자 개인의 당뇨병 질병관리 질적 개선, △지역전체 당뇨병 진료의 최적화, △투석 등 당뇨병 환자의 중증화 예방으로 의료비의 적정화 실현

<그림> 지바시의 순환형 지역의료 연계 시스템



○ (낙도 의료복지 모델) 의료자원이 부족한 낙도에서 의료기관, 돌봄·복지시설 등을 구축해 경영을 건전화하면서도 의료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·돌봄서비스를 제공

- 가고시마현 아마미(奄美) 군도의 경우 대형 민간의료법인그룹이 섬 내에서의 의료서비스 완결, 최첨단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의료 관계자를 해당 섬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, 주민의 건강유지 및 예방에 적극 관여하도록 지시

* (성과) △섬 내에서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, △병원·행정기관이 연계해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실현, △의료비 저감, △병원 이용률은 높고 병상당 환자수는 많아지는 등 병영 경영 환경 개선

정책동향

미국, '패스트트랙' 등 신속한 규제검토 통해 항암제 승인절차 개선

- 미국 터프츠대 의약품개발연구센터(Center for the Study of Drug Development : CSDD)는 미국에서는 항암제 신약 승인기간이 비항암제 승인기간 보다 짧은 반면, EU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
 - CSDD는 '02년부터 '11년까지 미국과 EU의 신약 승인기간을 비교한 결과, 미국에서는 항암제가 비항암제보다 평균 10개월 정도 EU에서는 비항암제가 항암제보다 2개월 가량 승인이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설명
 - * 또 미국은 EU보다 항암제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54% 빨랐으며, EU는 미국보다 비항암제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27% 짧은 것으로 파악
 - CSDD는 미국에서 항암제 승인기간이 짧은 데 대해 **패스트트랙(fast track)** 등 제도를 통해 규제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승인 절차 과정이 개선된 데 기인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[In-Pharma Technologist, 2012.09.10]

미 감염증학회, GAS 인두염 가이드라인 개정

- 미국감염증학회(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: IDSA)는 A군 용혈성연쇄구균 인두염(Group A streptococcal pharyngitis : GAS 인두염) 진료 가이드라인을 지난 '02년 이후 10년 만에 다음과 같이 개정
 - 첫째, 기침과 콧물이 나고 목소리가 쉬었으며 입속이 붉는 등 바이러스성 인두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는 GAS 인두염 검사가 불필요
 - * GAS 인두염은 고열이 수반되거나 음식물 섭취 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
 - 둘째, GAS 인두염이 의심되더라도 양성이 아니면 항균제 사용이 불필요
 - * 미국에서 인두통으로 진단받는 환자는 연간 1천5백만명에 이르나 실제 인두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아동이 20~30% 정도이고 성인은 이보다 훨씬 적으나 인두통 진단 환자의 70%가 항균제를 처방받고 있는 상황
 - 셋째, GAS 인두염이 음성으로 진단된 성인에게는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, 3세 이하 아동의 GAS 인두염 역시 검사가 불필요 [AHC Media, 2012.09.12]

독일, 스타틴 제제 관련문서에 당뇨병 발병 위험 기록 의무화

- 독일의약품의료기청(BfArM)은 오는 11월부터 독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‘스타틴(Statin)’ 제제와 관련된 문서에 당뇨병 발병 위험을 명기하도록 의무화
 -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유럽의약품청(EMA)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
 - 지난 '08년 저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(LDL-C), 고감도C반응단백(hs-CRP) 수치가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스타틴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7% 증가(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)
 - 이후 스타틴 복용 시 당뇨병 위험이 각각 13%와 9%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최근에는 폐경여성의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
 - EMA와 영국의약품청(MHRA) 및 미 식품의약국(FDA)은 올 초 스타틴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있으나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스타틴 제제 관련 문서에 당뇨병 발병 문구 삽입을 의무화 [Aerzteblatt, 2012.09.11]

일본, 치매 조기진단 정책 시행

- 일본 정부는 치매를 조기에 진단·치료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
 - 정책은 치매 환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는 환경 구비를 목표로, 치매를 조기에 진단·치료하고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
 - 정부는 이를 위해 '13년부터 간호사와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‘초기집중지원팀’을 신설, 치매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대처 방안을 조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의료기관을 연계시킬 방침
 - 또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지역 의료기관을 현재 173 곳에서 5백여 곳으로 확대하고, 주치의 등을 대상으로 치매 교육을 강화할 계획
 -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5년 후에는 186만 명의 치매 환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한편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일본 치매 환자 수는 올해 305만 명으로 10년 전의 2배를 상회하고 '17년에는 373만명 '20년에는 4백만명을 돌파할 전망 [公明日報, 2012.09.19]

사우디 정부, 대형병원 건설 수행업체로 HLG 컨소시엄 선정

-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킹파드메디컬시티(King Fahad Medical City)에 대형병원을 건설하는 사업 수행업체로 UAE의 합투어 레이튼 그룹(Habtoor Leighton Group : HLG)과 사우디의 알라티에타 트레이딩 앤 컨트랙팅(Al Latifia Trading and Contracting : ALTC) 컨소시엄을 선정
 - 이번 병원 건설은 사우디 정부가 수도인 리야드 중심부 킹파드메디컬시티에 일련의 새로운 메디컬 센터들을 설립하는 PPNNCC 프로젝트의 일환으로, 병원 설립 소요 예산은 11억8천만 리얄(약 3억1천5백만불)
 - 병원은 23만4천㎡ 부지에 510 병상을 갖춘 지상 11층 지하 2층 규모
 - 병원에는 국립신경과학연구소(National Neurosciences Institute), 종합암센터(Comprehensive Cancer Center), 심장센터(Cardiac Center)와 기타 연구소 및 사무실, 지하 주차장 등이 구비
 - HLG 컨소시엄은 올 연말 병원 착공에 들어가 3년 후 완공한다는 계획

[AMEinfo, 2012.09.18]

미 FDA, 로레알 ‘랑콤’ 화장품 광고 중단 지시

- 미국 식품의약국(FDA)은 프랑스 로레알 그룹의 계열사인 랑콤 USA(Lancôme USA)를 상대로 제니피끄(Genifique), 압솔뤼(Absolue), 레네르지(Renergie) 계열 스킨케어 제품들의 광고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
 - FDA는 랑콤 USA가 이들 제품을 광고하면서 효능을 강조한 부분이 의약품과 화장품 광고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면 안 된다는 ‘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(Federal Food, Drug, and Cosmetic Act : FFDCA)’ 제20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
 - * 예를 들어 “유전자 기능을 활성화시킨다”거나 “세포재생을 촉진한다” 등 항노화 효과를 표현한 문구는 화장품 광고 수위를 넘었다는 것이 FDA의 판단
 - FDA는 인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의 경우 FFDCA에 근거해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
 - 한편 로레알 측은 미국의 법과 제도를 준수할 계획이며 적절한 시기에 광고 중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발표

[Foxbusiness, 2012.09.11]

산업동향

글로벌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위축

- 글로벌 제약업체들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이 잇달아 실패로 끝나는 추세
 - 미 화이자는 지난 1월 ‘다이메본(Dimebon)’ 임상시험을 아무 성과 없이 7억 5천만불의 개발 투자비만 낭비한 채 끝냈으며 일라이릴리도 8월 ‘솔라네주맵(solanezumab)’ 임상시험에 실패
 - 아일랜드 제약업체 엘란이 지난 7월 미 화이자 및 J&J와 공동개발한 ‘바피뉴주맵(bapineuzumab)’도 알츠하이머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
 - 제약업체들은 알츠하이머 R&D가 어렵고 비용부담이 크다고 호소하는 가운데, 치료제 개발 위축은 심각한 사회·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
 -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현재 영국 내 50만 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만 명에 달하며 오는 '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

[Independent, 2012.09.19]

미 J&J, 4개 지역별 글로벌 혁신센터 설립 방침

- 미 J&J는 캘리포니아, 보스턴, 런던, 중국 등 4곳에 지역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센터를 설립할 방침
 - 이번 조치는 제약, 의료기기, 진단의학, 컨슈머 부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·발매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
 - J&J는 라이선싱 제휴, 투자, 자금,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들을 각 혁신센터에 결집시킬 계획인 가운데 4개 혁신센터는 일단 15~20명의 인력으로 출범
 - 혁신센터는 면역요법제·항암제·감염성 질환 치료제 등 J&J가 지금까지 주력해 온 분야는 물론, 아직까지 의료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
 - 한편 J&J는 매년 5~10개 바이오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가운데 현재 전 세계에서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벤처 기업은 80여개

[Reuters, 2012.09.18]

미 유-시스템스, 초음파 치밀유방 진단기 승인 획득

- 미국 의료기기 업체 유-시스템스(U-Systems)가 개발한 초음파 유방암 진단기 ‘소모-브이 에이버스(somo-v Automated Breast Ultrasound : somo-v ABUS)’가 식품의약국(FDA)로부터 사용 승인을 획득
 - 소모-브이 에이버스는 암 진단이 어려운 ‘치밀유방(dense breast)’을 가진 여성에게 초음파로 순식간에 유방암 여부를 진단하는 기기로, 기존 유방조영상(mammogram, 유방암 검진 X선 촬영) 기기보다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제품
 - *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의하면 유방조영상을 받는 여성의 40% 이상이 치밀유방을 갖고 있어 유방조영상만으로는 검진에 한계가 존재
 - * 치밀유방이란 유선조직이 풍부하고 촘촘하며 단단하게 뭉쳐진 유방을 의미
 - 미국에서 치밀유방 초음파 검사기기가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,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소모-브이 에이버스가 이미 승인을 획득 [Dotmed news, 2012.09.19]

덴마크 룬트벡, 핀란드 바이오티에 1천만 유로 투자

- 덴마크 제약업체 룬트벡(Lundbeck)은 핀란드 생명공학업체 바이오티 세라피스(Biotie Therapies)에 1천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
 - 바이오티는 알코올 중독 치료제 ‘셀링크로(Selincro)’를 개발한 회사로 현재 룬트벡과는 셀링크로 판매와 관련해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
 - 이번 투자와 관련, 룬트벡은 EU와 유럽자유무역지대(EFTA) 및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바이오티에 지급하는 셀링크로 판매 로열티를 줄이고, 바이오티는 일본에서 추가로 5백만 유로의 판매 로열티를 받기로 계약 조건을 수정
 - * 이에 따라 바이오티가 선금과 중간로열티로 받는 금액은 이전 8천4백만 유로에서 8천9백만 유로로 증가한 가운데 바이오티는 이미 1천2백만 유로를 수령
 - 룬트벡은 지난 '11년 2월 유럽의약품청(EMA)에 셀링크로의 판매 승인을 신청했으며 승인 허가 여부는 올 4분기에 결정될 전망
 - 한편 바이오티는 셀링크로에 이어 파킨슨병 치료제 토자데난트(tozadenant)를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벨기에 제약업체 UCB와 파트너십을 체결
- [Pharma Times, 2012.09.10]

독 베링거, 스위스 취리히공대와 당뇨병·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

-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(Boehringer Ingelheim)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(ETH Zurich)과 당뇨병 및 비만을 치료하는 신약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
 - 양측은 ‘대사계 항상성(metabolic homeostasis)’에 영향을 미쳐 당뇨병과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3개 세포 유형에 관해 향후 4년간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
 - 또 보다 효과적·혁신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체지표인자와 진단기구들도 개발할 방침
 - 이를 위해 양측은 췌장과 장에 위치한 신경내분비 세포들의 표면단백질 기능과 신호전달 경로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와 갈색지방조직의 발달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할 계획
 - 한편 이번 공동 개발로 베링거는 기초과학 연구를 보다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에 접목시키는 R&D 분야에서 한층 탄탄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[Zenopa, 2012.09.10]

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, 얼굴 형태 결정 유전자 발견

-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 연구팀은 인간의 얼굴 형태를 결정하는 유전자 5개를 발견했다고 플로스 제네틱스(PLoS Genetics)지를 통해 발표
 - 연구팀은 얼굴 형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네덜란드·독일·호주에 거주하는 유럽인 5천4백명을 대상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(MRI)를 이용, 코 위에 27개 측정점들을 설정
 - 그 뒤 측정점들 사이의 위치 관계가 DNA 염기배열의 개인차와 관련 있는지를 분석해 해당 유전자를 발견하는 데 성공
 - * 유전자와 얼굴의 관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 DNA에서 얼굴의 특징을 유추할 수 있어, 예를 들어 경찰이 범인 얼굴을 쉽게 파악하는 등 과학수사가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
 - 연구팀은 향후 DNA 조사 대상자와 얼굴 형태의 측정점을 늘려 분석하면 얼굴 형태 결정 유전자가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 [GenomeWeb, 2012.09.14]

미 심장기기 업체 보스턴 사이언티픽, 브릿지포인트 메디컬 인수

- 미국 심장기기 개발업체 보스턴 사이언티픽(Boston Scientific)이 같은 미국의 브릿지포인트 메디컬(BridgePoint Medical)을 인수하기로 결정
 - 미네소타주 나틱에 위치한 브릿지포인트 메디컬은 관상동맥 폐쇄를 치료하는 ‘카테터 베이스드 시스템(catheter-based system)’을 개발해 온 민간 의료기기 업체
 - 케빈 볼린저(Kevin Ballinger) 보스턴 사이언티픽 심혈관 중재시술 책임자는 이번 인수로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의료기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심혈관 중재시술 부문에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
 - 인수 금액은 비공개된 가운데, 인수는 올 연말 안으로 완료될 전망
 - 한편 브릿지포인트의 크로스보스(CrossBoss) 제품과 스팅그레이(Stingray) 제품은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승인을 이미 획득 [Boston Herald, 2012.09.20]

영 킹스칼리지런던·에식, 산호 추출물 자외선 차단제 개발 제휴

- 영국 킹스칼리지런던(King's College London)과 화장품 업체 에식(Aethic)은 산호에서 추출한 마이코스포린 유사 아미노산(mycosporine-like amino acids : MAA)을 핵심 성분으로 함유한 자외선 차단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
 - 킹스칼리지런던 폴 롱(Paul Long) 교수팀은 지난 '11년 얇은 바다에 서식하는 산호가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MAA 물질을 생성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성공
 - 킹스칼리지런던 세인트존스피부연구소(St John's Institute of Dermatology)는 이 메커니즘에 기반, MAA가 인간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에식과 공동 분석할 계획
 - 연구는 현재 에식이 발매 중인 자외선 차단제 ‘소베(Sovee)’에 MAA를 함유시킨 후 착수될 예정으로 이 경우에도 MAA의 효능이 입증되면 광범위한 효과를 발휘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외선 차단제가 개발될 수 있을 전망
 - * 소베는 장파장 자외선(UVA)과 중파장 자외선(UVB)을 모두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, 광안정성(photo-stability)을 확보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품

[News Medical, 2012.09.12]

신규보고서

일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의사 양성 방안

- 일본 후생노동성은 '12년 9월 발표한 ‘12년 지역의 의사확보 대책(地域の医師確保対策 2012)’ 보고서를 통해 의사의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한 의사 양성 방안을 제시
 - 후생노동성은 의사의 역량 강화라는 명제 아래 △의사의 지역편재 해소 △진료환경 정비 △의료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각 도도부현에서 진료분야에 적정한 의사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시행할 방침
 - * 일본에서는 매년 4천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되면서 지난 '10년에는 의사 수가 28만 명에 이르렀으나 지역 및 진료분야에 따른 편차가 심각한 상황
 - 후생노동성은 문부과학성과 긴밀히 공조해 △제도적 검토 과정을 거치고 △예산을 편성하며 △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구할 계획
- 후생성은 각 도도부현의 의사 분포 현황과 의료 수요 및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의사 수급 전망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면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의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
 - 첫째,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에 종사함을 조건으로 정부가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급하고, 대학에는 지역 병원과 연계해 임상실습을 강화함으로써 의사의 역량을 제고하면서 지역 및 진료분야 편재 현상을 완화
 - 둘째, 도도부현 ‘지역의료지원센터’를 활용해 청년 의사들이 전문의나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
 - 셋째, 지역간 및 진료분야 간 의사 임상 연수제도 품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
 - 넷째,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돌봄 서비스 및 재택의료와 연관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향후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의사를 육성
 - 다섯째, 세계의학교육연맹(WFME)이 설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인증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

성장하는 대만 의약품 · 의료기기 시장

-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(Global Data)사는 '12년 8월 발표한 ‘헬스케어, 규제 및 의료급여 전망(Healthcare, Regulatory and Reimbursement Landscape-Taiwan)’ 보고서에서 대만 의약품 · 의료기기 시장을 분석 전망
 - 대만 의약품 · 의료기기 시장은 성장을 거듭, 의약품 시장은 지난 '11년 38억불 규모에서 오는 '20년에는 48억불, 의료기기시장은 19억불에서 30억불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대만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보편적 의료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의약품 ·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, 특히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층 인구 증가는 이들 시장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
 - 대만의 총 인구수는 지난 '05년 2천280만명에서 '10년에는 2천320만명으로 0.3% 증가했으나 출산율은 1천명당 9.1명에서 7.2명으로 오히려 하락했으며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해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
 -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전체 인구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현재 11% 미만에서 오는 '20년에는 13%로 높아질 전망
- 대만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의료보험 재정이 압박받아 보편적 의료제도인 국가건강보험(National Health Insurance : NHI) 제도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
 - 대만 보건부인 행정원위생서(行政院衛生署)는 대만 의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'11년 6.6%에서 '20년에는 7.2%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
 - * '10년 대만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60불이며, 전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6.4%로 파악
 - 대만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격년마다 약가 인하를 단행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제네릭 의약품 사용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
 - * '11년 대만 의약품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(매출액 기준)은 2/3이며 제네릭 의약품은 27% OTC 의약품은 8% 정도에 불과해 제네릭 의약품 비중이 전체의 2/3를 차지하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과 대비